



전주매일



민선 9기 전북도정 핵심 '체감성장'

재생에너지·AI반도체 등
인수위, 미래 전략 제시
30일 최종 보고회 예정
신 위원장 "도민 체감
도정 만드는 데 최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신형식 위원장과 체감성장특별위원회 김동열 위원장, 이정린 간사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 이후 민선 9기 도정의 비전과 핵심 전략 수립에 집중해 왔으며, 지난 19일 열린 1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주요 정책 방향을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형식 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철학은 도민이 직접 변화를 느끼는 '체감성장'이라며 "성장의 성과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와 소득,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미래산업 전략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퍼지컬 AI, AI 반도체 산업 육성이다.

미래산업분과는 에너지 주권으로 여는 글로벌 퍼지컬 AI·로봇 수도 전 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30GW 확대, 글로벌 AI 로봇 산업 거점 구축, AI 반도체 선도 지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산업도시 조성, 그린 수소 생태계 확대, AI 로봇 K-밸 리 구축, 우주·AI 반도체 소재 공급 망 확보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체감성장분과는 기회 성장 체감으로 전북경제 대전환을 목표로 전북성장공사 설립, 미래성장펀드 조성, 도지사 직속 체감성장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기업 투자환경 개선, 스타트업 육성, 청년창업 도시 조성, 로컬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주권분과는 도민이 정책의 객체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연 가운데, 인수위 출범 이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닌 주체가 되는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동화정신을 기반으로 전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 운영, 타운홀 미팅, 찾아가는 도정 등을 통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K분과는 농생명 산업과 전통 문화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스마트 농업 전환 청년농업인 육성과 함께 K-푸드 혁신벨트 구축, 식품바이오 벤처 육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K-스토리 콤플렉스 조성,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체류형 관광 확대 등이 논의됐다.

도민행복분과는 초고령사회와 저출생, 필수의료 부족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어르신·장애인 돌봄 강화, SOC 돌봄센터 구축, 손주돌봄센터 운영, 산후 조리비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3개 특별위원회도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검토했다.

5극3축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 위원회는 행정통합이 아닌 기능연계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그린수소,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는 올림픽 유치로 전북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관광·SOC 확충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20조 AI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재생에너지와 용수 공급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구축, 규제혁신 및 전문인력 양성 전략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원택 당선인은 "민선 9기의 모든 정책은 내발적 발전에 기반한 체

감성장의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문화예술인과 지역업자, 소상공인, 복지현장 등 실제 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수요 중심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정책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도민이 체감할 수 없다"며 실행력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서부권 중심 발전전략에 그치지 않고 동부권 발전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28일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책 간 중복과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체감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민선 9기 도정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신형식 위원장은 "전북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민선 9기는 과거를 관리하는 도정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미륵산성·오금산성 발굴 성과 오늘 공유

익산시, 국가유산청과 현장 설명회
백제 토목·축성 기술 등 시민 공개

익산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23일 미륵산성 및 오금산성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륵산성과 오금산성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10시에는 미륵산성, 오후 3시에는 오금산성에서 각각 진행된다.

익산은 백제 사비기에 조성된 왕궁리유적을 비롯해 국가사찰인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등 백제왕도를 대표하는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성과로 도성을 보호하는 관방체계가 확인되면서 백제왕도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익산 지역 백제 성과로는 미륵산성, 오금산성, 금마도토성, 낭산성 등이 있다.

미륵산성은 동문지와 남문지, 치성, 건물지, 집수시설 등이 통일신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2022년부터 시작된 정상부 평탄지 발굴조사에서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원형 석축저수주가 발견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륵산 정상 아래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추정 토목(성토대지층)의 발굴 성과를 공유한다.

오금산성은 2016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백제시기 서문지와 석축 성벽, 집수시설 수부(首府)

명 인장와, 칠피(漆皮) 감옷편 등이 출토돼 축성 및 사용 시기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집수시설 조사 과정에서 '정사 금제식'이 적힌 봉축편이 출토돼 백제의 문서 관리 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받았다. 봉축편은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를 보관·분류할 때 사용한 목재 막대기로, 정사는 587년 또는 657년, 금제식은 현재 남아있는 식량을 뜻한다.

오금산성 현장 설명회에서는 토축성벽과 석축성벽의 발굴 성과를 공개한다.

토축성벽은 원지형을 점토로 고르게 만들어 일정한 간격의 관재를 설치한 뒤, 물성이 다른 흙을 교대로 관축하고 다시 바깥에 돌과 흙을 이용해 보강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7~9단 정도가 남아 있는 석축 성벽은 잘 다듬어진 20~30cm 내외의 사형 석재들을 착안 및 그늘이 기법을 이용해 정교하게 쌓았는데, 이는 인근의 백제왕궁인 익산 왕궁리유적의 동서축대와 같은 수법으로 주목된다.

현장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발굴조사단의 설명을 들으며 조사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과(063-850-570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도, 양파 수급안정 대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해 시장거래와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산지조절에 나선다. 올해 3월 조생종 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 2025년산 저장양파 재고물량 2200톤을 시장거래를 완료했으며, 중간생존 수확기에는 58.1ha 규모,

약 4500톤 상당의 물량에 대한 출하 정지를 추진했다.

도는 공급 조절과 함께 소비 확대를 위한 관측행사도 추진한다. 전북생생장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할인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농협과 협력해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양파 소비촉진 특별 관측행사를 개최한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법원, '12·3 내란 가담' 박성재에 징역 25년 선고... 법정구속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